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상담센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2월 1일 **금요일** (음 10월 14일) 제194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순조로워진다

▶ 새특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

이달 초 법사위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되면

내년 6월에 설립 이뤄져

전북도가 지난 30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근거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새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위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매립을 통해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이끌 수 있는 공사 설립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공공매립에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새만금사업 추진조직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기간간 역할 분담 등에 대한 추가 논의의 사항까지 법안에 반영, 12월중 처리하자는 의견으로 오전에 정회했다.

하지만 전북도, 국토부, 새만금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 이원욱, 안호영, 정동영, 윤관석, 주승용, 윤영일 의원 등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발원으로 이명수의원과

조정식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 조정하여 가결됐다.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근거, 자본금, 출자 및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국무조정실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대표발의한 조정식 국토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홍철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 정중섭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 등 소속 위원들을 대상으로 국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공공매립을 통한 새만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근거가 마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해 왔었다.

또한, 최정호 정무부처는 국토교통부 근무경력을 활용해 국회에 상주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담의원들은 물론, 법안통과에 소극적인 야당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설득했다.

특히, 지난 국토위 소위와 오늘 열린 전체 회의에 참석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새특법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12월 초)와 국회 본회의 의결(12월 초)을 통해 법안이 개정되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곧바로 내년도에 새만금개발공사 설립(6월) 및 출범(7월)이 이뤄지게 된다. /김진성 기자



지난 3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김성주 이사장 등이 새로운 30년을 위한 비전 선포를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어느덧 30돌

‘국민이 주인인 연금시대’로 힘차게 출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지난 30일, 공단 본부 사옥 1층 온누리홀(전주시 덕진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양승조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송하진 도지사, 김광수 국회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해 국민연금공단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했다.

또한, 한스-호르스트 콘클로브스키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사무총장, 로이드 블랭크페인 골드만삭스 CEO,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가 축하 영상을 보내와 공단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줬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민연금제도 및 공단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정경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위원

‘지속가능 연금급여 복지서비스로 생활보장 든든한 평생 파트너 될 것’ 창립 기념식서 비전 선포

이 국민훈장무렵장, 김무용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가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14명에게 훈, 포장 및 대통령표창이 수여되고, 357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이사장표창이 수여됐다.

김성주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국민의 연금’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새로운 30년을 향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공단은 ‘새로운 30년, 미래를 향한 도약’을 다짐하며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미션은 ‘지속가능한 연금급여와 복지서비스로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이며, 이를 위한 비전은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이다.

이와 함께, 새로 정립된 핵심가치는 신뢰, 열정, 공유, 책임, 공정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는 지난 30년간의 성과를 조명하는 연혁보고를 비롯하여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사 공동선언, 소리지존 퓨전타악 퍼포먼스 등 축하공연, 30주년 기념 식수 심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해양산업 육성 비전 수립

전북연구원, 33개 과제 제시

전북연구원은 정책브리프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전라북도 해양산업 육성비전과 핵심목표를 수립하고, 집중육성산업 선정, 추진과제 등을 제안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전라북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해양산업 육성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친환경 이슈, 여가문화 확산,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 신산업 개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정부에서 신산업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을 육성하는 계

회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 해양산업 육성비전으로 ‘해양락도 전라북도(海洋樂道 全羅北道)’, 핵심목표로 ‘전북도 해양산업육성 방향설정과 토대구축(2018~2022)’을 제안했다.

전북도의 집중육성 해양산업으로 ‘수산물산업’, ‘해양레저산업’, ‘해양관광물류산업’, ‘미래해양산업’을 제안하고, 산업별 인프라 구축, 기존 산업 활성화, 연구 및 지원 등 3가지 추진전략에 맞추어 수산물품 가치향상 클러스터 조성 등 총 33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지역 최초 가슴 열지 않고 대동맥판막 삽입술 성공

5면 - 도교육청, 저소득층 컴퓨터 지원 전국 최다

한은, 금리 1.50%로 인상
 사상 최저금리 시대 종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현실화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지난 30일 기준금리를 1.50%로 전격 인상했다. 국내 경기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리를 올릴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삼삼본관에 위치한 임시본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연 1.25%의 기준금리를 0.25%p 올려 연 1.50%로 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로 내려간 뒤 17개월 만에 조정된 것이다.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5개월 만이다.

지난 2011년 6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단행
 경기 회복세 등이 주요인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돼

이번 금리인상은 국내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진했던 소비 등 내수에 대한 우려가 다소 경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3분기 국내 경제성장률 1.4%를 기록하며 올해 연 3.0% 성장도 가뭄할 만큼 금리를 올려도 될 만한 경제 여건이 형성됐다고 본 것이다.

최근 중국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갈등’이 봉합되면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 영향도 있다. 금통위 직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긴 했지만 금리인상을 뒤집을 만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00조원에 달한 가계부채 증가세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그대로 묶어두면 가계빚으로 쏠려있는 금융 불균형을 더욱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금리를 0.25%p 올리더라도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빚 부실화 위험이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본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유려한 만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대비할 방어책이 필요했던 점도 있어 보인다. /뉴시스

*토·일요일신문 읽는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